

“증권거래세율 원안 유지하고 배당 분리과세, 별도 논의해야”

금투세 도입 가정하고 논의된 사안
증권거래세율 점진적으로 인하
배당 분리과세, 주주환원 차원 고려
내년 세수 감소 규모 더 커질 수 있어

금융투자소득세가 야당의 동의로
폐지 수순을 밟는 가운데, 금투세 도입
과 함께 논의되던 배당소득 분리과세
와 거래세율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
다. 두 사안이 금투세 도입 시를 가정
하고 논의되었기에, 세수를 위해서라
도 원안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전문가들은 금투세와 별개
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
정부는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증권거
래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고 있으
나, 금투세가 폐지되더라도 원안을 그
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21
년부터 진행된 거래세율 인하 정책에
따라 올해부터는 거래 시 0.18%의 증
권거래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내년 0.15%(0.03%p ↓)로 조정될 예정
이다. 이는 금투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도 증권거래세율 인하가 계획대로 진
행될 경우, 내년 세수 감소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30일 발
간한 보고서에서 “자본시장에 대한 부
정적 과급 효과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
나, 정책 일관성 저하 등의 부작용을
감안해 증권거래세 및 대주주 기준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증권거래세율 인
하시 세수가 줄어든 수 있다는 점을 언
급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사실 개인투자
자에게는 증권거래세가 크게 부담되는
세제 항목은 아니다”라면서도, “증권거
래세가 다시 늘어나면 데이 트레이딩을
주로 하는 투자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금투세 도입만큼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투업계에서는 금투세 폐
지로 인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이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배당을
통해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당소득은
14% 원천징수로 분리과세한다. 하지
만 야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고소
득층에게 세금 혜택이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일종의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맞서 전문가들은 증시 활성
화를 위해서라도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한국
증권학회장)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금투세가 폐지되면 논의할 필요가 없
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밸류업 정책’
이나 ‘주주 환원’ 차원에서 별도로 고려
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대주주 입장에서 금투세
보다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이 더 큰 경
우가 많아, 배당액을 높이려면 기존안
에서 개선할 부분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금투세는 세금의 형평성 측면을
고려해 5000만 원까지 공제해주는 안
을 채택한 바 있는데, 배당소득 분리과
세도 분리과세 한도를 현행 2000만 원
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는 상향해 적
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치투자의 대가’인 이채원 라이프
자산운용 의장도 “종합소득세와 배당
소득세를 분리하자는 명분을 세우려면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방법”이라
며, “개인에게는 배당소득세율을 2000
만 원 초과 시 세율 15.4%를, 대주주에
게는 세율 25%를 부과한다면 오히려
밸류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금투
세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김승연 “도전·혁신으로 글로벌 운용사 도약”

(한화그룹 회장)

한화자산운용 본사 방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5일 한화자
산운용 본사인 서울 여의도 63빌딩을
방문해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글로벌 자
산운용사로서의 혁신과 도전을 주문했
다. 이 자리에는 한화생명의 글로벌 금
융사업을 이끄는 김동원 한화생명 최고
글로벌책임자(CGO, 사장)와 김중호 한
화자산운용 대표이사가 함께했다.

김승연 회장은 “한화자산운용은 어
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도전과 혁신
을 거듭하며 운용자산 100조원이 넘는
국내 최고의 자산운용사로 성장했다”
며 “국내에서 축적한 역량을 기반으로
미국과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도 현지
법인을 운영하며 글로벌 자산운용사로
도약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한화자산운용은 북미, 유럽, 아시아
지역 내 골드만삭스, KKR, 테마섹 등
약 50개 이상의 금융기관과 네트워크
를 구축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
력을 높이고 있다. 미주법인은 샌프란
시스코 본사와 뉴욕 사무소를 기반으
로 선진 금융시장과의 접근성을 강화
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법인은 아시아
시장 확대를 위한 주요 거점으로 활용
되고 있다.

한화자산운용 미주법인은 지난해 미
국 현지 대체투자 펀드 출시 등의 성과
를 통해 미국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주채권 외에도 금융투자 전
문성을 갖춘 10인을 직접 현지 채용하
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의 직접투자 경
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김회장은 프라이빗에쿼티(PE) 사업
본부 직원들의 ‘1등 한화’ 의지를 담은
타임캡슐을 직접 밀봉하며 한화자산운
용의 선전을 함께 기원했다. 김 회장은
“주식, 채권 같은 전통자산 및 대체투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왼쪽)이 한화자산운용 본사를 방문해 임직원을 격려하는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한화자산운용

분야에서는 시장을 선도할 지속 가능
한 경쟁력을 갖추 나가자”며 “빠른 속도
로 성장 중인 프라이빗에쿼티(PE) 및
벤처캐피탈(VC) 부문과 ETF, 연금 사
업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해 투자자들의 내일을 더
욱 풍요롭게 만들어 가자”고 제언했다.

한화자산운용의 대체투자 부문은 P
E·VC, 인프라, 부동산 각 사업이 지속
적인 성장을 보이면서 올해 9월 말 기
준 운용규모 20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PE·VC 사업은 지난해 말 기준 운용자
산 약 6조원을 기록하는 등 큰 폭의 성
장을 이뤘다.

지난해 상장한 ‘PLUS K방산’ ETF
는 ‘K방산’의 수출 성과에 힘입어 올해
국내 ETF 시장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
(10월 31일 종가 기준 62.21%)을 거두
며 순자산규모가 2500억원 수준까지 성
장했다. 최근 한화자산운용은 ‘K방산’
의 뉴욕 증시 상장도 추진하고 있다.

김 회장은 “그 어느 시장보다도 치열
한 경쟁 속에 매 순간 열정을 다해 몰입
하는 자산운용 임직원 여러분은 이미
한화를 대표하는 ‘그레이트 챌린저’라
며 “신임 대표이사를 비롯한 한화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
에 놓인 기회는 눈부신 미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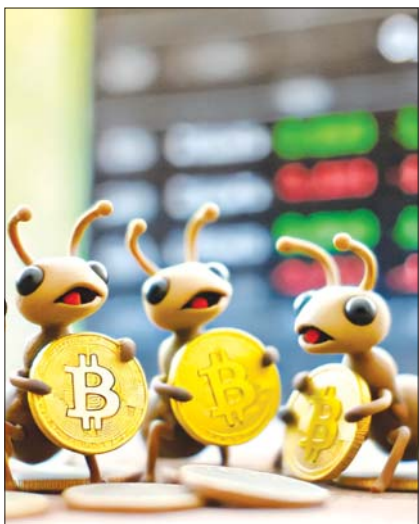
비트코인 ETF로 ‘트럼프 트레이드’ 노린다

해외주식 Click

트럼프, 암호화폐 산업 우호적 입장
현재 약세... 추가상승 기대감 잔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폭락 종목도 ‘쭈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가상
자산 산업을 적극 지지하면서 서학개
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
들도 비트코인 관련 상장지수펀드(ET
F)를 장바구니에 담고 있다. 미국 대통
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수혜
종목에 투자하는 모습이다.

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주(10월 29일~10월 4일) 서학개미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에 비트코인 관련 종
목들이 이름을 올렸다. 미 대선이 다가
오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트레이드’
중 비트코인이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서학개미들의 관심도 이어지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에 마이
크로스트래티지 주가를 2배로 추종하
는 ‘테렉스 2X 롱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데일리 타겟 ETF’와 미국 가상자산 거
래소 코인베이스 주가를 2배로 추종하
는 ‘그레닛세어즈 2X ETF’를 각각
3470만달러(약 479억원), 3334만달러



GhatGPT에 의해 생성된 '비트코인 관련 종목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 이미지.

(460억원)씩 순매수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 기업으로, 도널드 트럼
프 전 대통령의 가상자산 지지와 함께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
3월 닷컴 버블에서 정점을 찍은 이후
최대 수치다. 지난달에만 약 45.01%
올랐으나, 이달 들어서는 8.79% 급락
하며 내림세에 진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

을 자주 보여왔다. 선거유세에서도 그
는 “비트코인을 미국의 국가 전략 자산
으로 비축하겠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
었다. 이러한 호재가 작용하자 비트코
인은 지난달 29일 약 6개월 만에 개당
7만3000달러(약 1억원)를 돌파하는 등
사상 최고가에 접근했었다. 현재는 약
세를 보이면서 4일 만에 약 5000달러가
증발했지만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서학개미들은 마이크로소
프트, 메타플랫폼 등 폭락 종목에도 높은
선호를 보이고 저가매수 전략을 펼쳤
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올해 3분기
호실적을 기록했지만 예상보다 저조한
주가 성적을 보이고 있다. 마이크로소
프트의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656억달러를 기록했다. 이
는 월가 예상치였던 645억달러도 상회
한다. 하지만 분기 순이익률이 37.6%
로 전년 대비 1.8%포인트 하락한 탓에
주가는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증시에 난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서학개미들은 저가매수를 선택하며 지
난주에도 마이크로소프트를 6230만달
러(858억원), 메타를 4462만달러(614억
원)씩 사들였다. /신하은 기자 godhe@

키움증권, 민평금리보다 높게 통안채 판매

24종목 중 16종목 매수수익률 높아

키움증권은 민평금리보다 높은 금리
에 통안채를 판매하고 있다고 5일 밝혔
다. 민평금리란 민간채권평가사가 평
가한 해당 채권 금리의 평균이다.

통안채는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한
국은행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발행하
는 것으로, 키움증권은 보유한 통안채

중 일부를 작은 단위로 개인투자자에게
장외로 판매하고 있다. 매수수익률(판
매금리)이 높을수록 고객에게 더 유리
하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장
외채권 총 24종목 중 16종목의 매수수
익률(판매금리)이 민평금리보다 높다.
현재 키움증권은 신규 채권을 장외에서
판매하는 경우 발행금리 그대로 판매하
거나 더 높게 판매하고 있다. /원관희 기자

두나무, ‘업비트 시장감시 시스템’ 기능 추가

시장동향 모니터링 기능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업비트 시장감시 시스템’ (U
pbit Market Oversight, UMO)에 시
장동향 모니터링 기능을 추가했다고 5
일 밝혔다.

두나무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
행에 앞서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감시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이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을 위해 주문
과 호가정보 매칭 등을 구현한 UMO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최근에는 UM

O를 업그레이드하면서 시장동향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대시보드 기능을 추가
했다. 이로써 불공정거래 행위 적출에
필요한 다양한 주요 단서를 즉각적이
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특히 UMO 대시보드에서는 입·출금
이 급증하거나 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
어난 가상자산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
다. 이를 통해 고가 매수나 자전거래 등
불공정거래 주문을 집중 제출하거나
대량 입·출고한 계정을 신속하게 파악
할 수 있어 적시에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처할 수 있다. /신하은 기자